

사회현상 ‘세월호’를 소재로 하는 만평의 서사구조 분석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표현 요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Narrative Structure of Satirical Cartoons on the Social Phenomenon of ‘Sewolho’

-Focused on Expressive Elements of the Satirical Cartoons in The Kyunghyang Shinmun and The Joongang Ilbo-

박경철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대학원 문화학과

Keong-Cheol Park(manphist@hanmail.net)

요약

만평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소재로 함에 있어서 시간 제약을 크게 받는 매체이다. 반면, ‘세월호’를 소재로 하는 만평은 1주기까지 경향신문 만평 74작품, 중앙일보 만평 46작품이 게재되었다. 이는 ‘세월호’를 소재로 하는 만평이 시간 제약을 벗어나 추도되고 정치적 쟁점이 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현상 ‘세월호’를 소재로 하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표현 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만평의 그림 요소인 캐릭터·칸·말풍선과 글 요소인 대사·이름·해설의 각 표현 요소가 결합하여 서사구조를 이룬다. 본 연구의 성과는 성향이 다른 두 신문사의 만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만평의 표현 요소를 통한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만화기호 | 만평 | 세월호 |

Abstract

A satirical cartoon is a time-limited medium in the context of specific social phenomena. On the other hand, satirical cartoons based on ‘Sewolho’ was published with 74 works by Kyunghyang Shinmun and 46 works by Joongang Ilbo. This is because it is a social phenomenon with a special meaning that satirical cartoons based on ‘Sewolho’ is a political issue that is called out of time constraints. In this study, I compared and analyzed the expressive elements of Kyunghyang Shinmun and Joongang Ilbo in the social phenomenon ‘Sewolho’. The elements of the character, frame, and speech bubble which are the picture elements of satirical cartoons, combine to form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 elements of the Speech, name and commentary which are also the sa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that the analysis of the narrative structure through the expressive elements of satirical cartoons is meaningful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atirical cartoons of two newspapers with different tendencies.

■ keyword : | Cartoon Sign | Satirical Cartoon | Sewol Ferry |

* 이 논문은 201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10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14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06일

교신저자 : 박경철, e-mail : manphist@hanmail.net

I. 서론

만평은 한 칸이나 서너 개의 칸으로 나뉘어 정치·사회적인 현상을 풍자하는 만화이다. 정치·사회현상을 풍자하는 만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신문사의 편향성이다. 만평은 풍자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정치적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신문사에 소속된 만평작가는 신문사의 정치적 관점에 의해 풍자의 강도나 편향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태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에서 속해 있는 언론사의 성향에 언론인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뉴스를 틀을 짓게 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만평작가의 정치적 관점이다. 이는 만평작가의 정치적 관점에 의해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의미작용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신병률은 <시사만화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조선일보 신경무 만평과 서울신문 백무현 만평을 비교하였다. 신경무 만평이 백무현 만평보다 더 자주 노 전 대통령을 풍자하였으며 ‘친노’를 타깃으로 삼았고 노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프레임하였다. 반면, 백무현 만평은 ‘반노’나 ‘비노’도 타깃으로 삼았으며, 이슈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으로 프레임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만평작가의 만평을 표현하는 기호적 성향이다. 만평작가마다 만평을 표현하는 만화기호의 선호도와 사용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만평작가의 기호적 성향이 만평을 표현하는 요소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문사의 편향성과 만평작가의 정치적 관점 및 만평을 표현하는 기호적 성향에 의해 사회현상이 만평으로 재구성된다고 하겠다.

만평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소재로 함에 있어서 시간에 제약을 크게 받는 매체이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풍자와 비판의 강도가 급속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특징의 사회현상을 소재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만평의 시간성’이라고 명하였다. 이로 인해 통상 시간이 지난 특정한 사회현상 대신에 새로운 사회현상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시간이 지난 특정한 사회현상이 사용되는

경우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미 알려진 특정한 사회현상을 활용하는 정도이다. 반면, ‘만평의 시간성’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현상이 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의 비극적 사건이 그 예이다. 이 사건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추도되고 정치적 쟁점이 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회현상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정한 사회현상인 세월호를 소재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경향신문의 <김용민의 그림마당>과 중앙일보의 <박용석 만평>을 선정하였다. 경향신문은 진보 성향의 매체로 인식되는 반면, 중앙일보는 보수 성향의 매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2014년 4월 17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1년으로 한정하였다. 사회현상 ‘세월호’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까지 게재된 만평을 대상으로 하였다. 네 번째, 그림 요소인 캐릭터·칸·말풍선과 글 요소인 대사·이름·해설의 만평을 표현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시간 순의 20작품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표 1]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위해 2014년 4월 17일부터 시간 순으로 게재된 각 20작품의 게재일이다.

표 1.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시간 순 20작품

게재	경향신문 만평	중앙일보 만평
일자	0417,0418,0421,0422,0423 0424,0425,0428,0430,0501 0502,0507,0508,0509,0512 0513,0514,0515,0516,0519	0417,0418,0419,0421,0422 0423,0424,0425,0428,0429 0430,0501,0503,0510,0512 0513,0514,0516,0519,0520
합계	20	20

박경철은 <만화콘텐츠 교육을 위한 네칸만화 구조와 수사법 연구>에서 네칸만화의 서사구조를 기승전결에 따른 구조를 활용하여 네칸만화를 분석하였다. 신병률은 <시사만화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내용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비교함으로써 두 만평의 풍자 방식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세월호를 소재로 하는 만평의 표현 요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만평의 서사구조

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신병률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만평의 총 개수', '만평의 주된 풍자대상: 노무현 vs 비노무현', '풍자 내용: (풍자 대상의) 정책 vs 행위' 등을 다루었다. 반면, 본 연구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표현 요소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 첫 번째, 그림 요소인 캐릭터·칸·말풍선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 글 요소인 대사·이름·해설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표현 요소가 결합하여 만평의 서사구조를 만든다. 참고로 분석을 위한 퍼센트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하였으며, 반올림하지 않았다.

II. '세월호' 만평의 표현 요소 분석

1. '세월호' 만평의 게재 현황

[그림 1]은 2014년 4월 17일부터 2015년 4월 16일 1주 기까지 사회현상 '세월호'를 주제로 한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과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의 월별 만평 횟수의 다이어그램이다. 경향신문의 만평은 총 74작품이며, 중앙일보의 만평은 총 46작품으로써 경향신문 만평의 62.1%에 해당한다. 특히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년 중 초중반에 작품이 몰려 있으며, 경향신문 만평은 총 61작품으로 82.4%, 중앙일보 만평은 총 41작품으로 89.1%다. 만평 횟수를 보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 만평작가가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 만평작가에 비해 사회현상 '세월호'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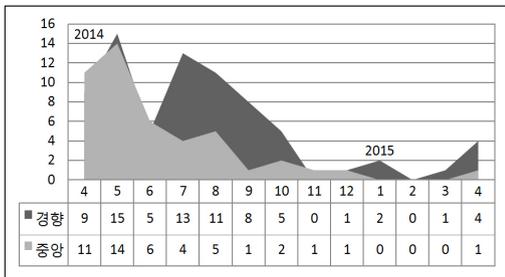


그림 1. 사회현상 '세월호'의 월별 만평 횟수

[표 2]는 [그림 1]의 '세월호' 만평이 신문에 게재된 일자 현황이다. 만평은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4년 4월의 경우를 보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두 신문사의 만평은 사회현상 '세월호'를 1번씩을 제외하고 매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월호로 상징되는 사회현상이 너무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제외된 경우에도 경향신문은 4월 29일에 여객선을 등장시키지만 '학교 앞 관광호텔 추진의 규제완화호'에 대한 소재여서 제외시켰다. 중앙일보는 토요일(4월 19일)에도 게재하고 있는데, 26일(토)의 경우 다른 사회현상을 게재하고 있다. 물론 배경에 바다와 등대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를 연상시킬 장치가 있는 셈이지만 주된 내용은 '정부의 뒷북행정'과 '국회의 뒷북입법'에 대한 소재라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월별 게재된 만평 중 2작품 이하를 분석하면, 경향신문 만평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며 2014년 11월과 2015년 2월에는 0작품이다. 중앙일보 만평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며,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0작품이다. 경향신문의 만평은 2014년 11월 이후 새로운 사회현상에 밀려 세월호에 대한 만평이 줄고 있다. 중앙일보의 만평은 9월부터 만평이 줄고 있는데 특히 새해인 2015년 1월부터는 1주기인 4월 16일을 제외하고 '세월호' 만평이 게재되지 않고 있다. 1주기가 되는 4월의 경우 경향신문 만평이 4작품, 중앙일보 만평이 1작품이라는 점에서 잊히지 않고 기억되는 세월호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는 반면에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만평의 시간성' 또한 잘 드러나고 있다.

표 2. '세월호' 만평의 1주기까지 신문 게재일

월	신문 게재일자	
	경향신문 만평	중앙일보 만평
4	0417,0418,0421,0422,0423 0424,0425,0428,0430	0417,0418,0419,0421,0422 0423,0424,0425,0428,0429 0430
5	0501,0502,0507,0508,0509 0512,0513,0514,0515,0516 0519,0520,0522,0527,0530	0501,0503,0510,0512,0513 0514,0516,0519,0520,0521 0522,0523,0524,0527
6	0604,0605,0610,0627,0630	0605,0611,0612,0613,0614 0616
7	0704,0707,0711,0715,0717 0721,0722,0723,0724,0725 0728,0729,0731	0723,0724,0725,0729
8	0801,0804,0805,0808,0812 0815,0825,0826,0827,0828 0829	0814,0820,0821,0828,0829

9	0901,0903,0904,0905,0910 0911,0916,0917	0911
10	1016,1027,1028,1029,1030	1016,1020
11	-	1125
12	1231	1231
1	0114,0129	-
2	-	-
3	0312	-
4	0403,0406,0409,0416	0416
합계	74	46

2. '세월호' 만평의 표현 요소

세월호를 소재로 한 만평이 처음 등장했던 2014년 4월 17일자의 경향신문 만평과 중앙일보 만평의 표현 요소를 비교해 보면 두 신문사 만평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경향신문 만평은 구조하러 가는 헬기 그림과 간접함이 담긴 독백체의 대사가 많은 구조인 반면, 중앙일보 만평은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뒤집혀 있는 세월호 그림과 대한민국의 이름이 표기된 간결한 구조다.

표 3. 4월 17일자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

게재일자	경향신문 만평	중앙일보 만평
4월 17일		

2.1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캐릭터

캐릭터는 만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만화기호 중 하나다.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대다수가 상상의 인물인 반면, 만평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는 실제 인물을 상징하거나 캐릭터 또는 실제 단체를 상징하는 인물인 경우가 많다. 만화가 상상의 창작물이 대다수인 반면, 만평은 실제로 발생한 사회현상을 소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표 4]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캐릭터 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표 1]의 2014년 4월 17일자 만평부터 시간 순으로 게재된 각 20작품의 만평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수를 분석한 표이다. 단, 중앙일

보 만평 20작품 중에서 5월 1일과 5월 10일 만평은 사람과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가 함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계산하여 22작품이 되었다.

경향신문 만평은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 만평이 3작품(15%)이며, 인물 캐릭터가 1명 이상 등장하는 만평이 17작품(85%)이다. 또한, 2명 이상 등장하는 만평이 75%며 많게는 8~9명까지 등장한다. 중앙일보 만평은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 만평이 6작품(27.2%)이다. 1명 이상과 2명 이하인 만평이 11작품(49.9%)이며, 6명이 등장하는 만평이 1작품(4.5%)이다. 또한,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거나 인물 캐릭터가 1~2명인 경우가 77.1%에 달한다. 즉 인물 캐릭터가 등장하는 중앙일보 만평은 54.4%로써 경향신문 만평의 85%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인물 캐릭터 3명 이상의 경우 경향신문 만평이 50%인 반면, 중앙일보 만평은 4.5%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앙일보 만평은 경향신문 만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인화된 만평이 18.1%에 달한다.

표 4.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캐릭터 수

캐릭터 수	경향신문 만평 수	중앙일보 만평 수
0	3(15%)	6(27.2%)
1	2(10%)	5(22.7%)
2	5(25%)	6(27.2%)
3	3(15%)	0(0%)
4	1(5%)	0(0%)
5	4(20%)	0(0%)
6	0(0%)	1(4.5%)
8	1(5%)	0(0%)
9	1(5%)	0(0%)
의인화	0(0%)	4(18.1%)
합계	20(100%)	22(99.7%)

만평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역할 중 하나에 해당한다. 첫 번째, 특정한 사회현상과 관련 있는 실제 인물을 상징한다. 통상 캐리커처의 형태를 취하여 실제 인물과 닮게 그려진다. 두 번째, 특정한 사회현상과 관련 있는 실제 단체나 집단을 상징한다. 사회현상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상의 얼굴로 묘사될지라도 독자가 복장을 통해 관련 있는 단체를 인지할 수 있게 관련성 있는 복장을 입거나 관련된 이름이나 해설이 해당 캐릭터 옆에 표기된다. 세 번째, 의인화된 캐릭터로 실제 인물이나 단체·집단

을 상징한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실제 인물이나 단체·집단을 희화화한다.

[표 5]는 많은 표본 수를 수집하기 위하여 [표 2]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실제인물 또는 단체의 캐릭터 횡수를 분석한 표이다. 국정수반으로서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경우, 경향신문 만평은 27작품(48.2%)이며 중앙일보 만평은 6작품(35.2%)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상징하는 유민아빠의 경우, 경향신문 만평은 13작품(23.2%)이며 중앙일보 만평은 3작품(17.6%)이다. 사고 수습 책임자였던 해경의 경우, 경향신문 만평은 5작품(8.9%)이며 중앙일보 만평은 7작품(41.1%)이다.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무성의 경우, 경향신문 만평은 11작품(19.6%)이며 중앙일보 만평은 1작품(5.8%)이다. 경향신문 만평이 '대통령(27) > 유민아빠(13) > 김무성(11) > 해경(5)'의 순으로 캐릭터를 등장시킨 반면, 중앙일보 만평은 '해경(7) > 대통령(6) > 유민아빠(3) > 김무성(1)'의 순으로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있다. 경향신문 만평의 가장 많은 캐릭터 횡수가 대통령(27)인 반면, 중앙일보 만평은 해경(7)이다. 이는 만평작가마다 정치적 관점에 차이가 있으며, 소재로서의 실제 인물에 대한 관심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차이는 등장하는 캐릭터에 영향을 미쳐 만평의 서사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이할 점은 세월호의 소유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유병인' 캐릭터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면서 관련 인물 캐릭터나 이름 또는 해설로 나오는 정도이다.

표 5. 만평의 주요 인물과 등장 횡수

인물/단체	경향신문 만평	중앙일보 만평
대통령	27(48.2%)	6(35.2%)
유민아빠	13(23.2%)	3(17.6%)
해경	5(8.9%)	7(41.1%)
김무성	11(19.6%)	1(5.8%)
총계	56(99.9%)	17(99.7%)

[표 4]의 '의인화' 항목을 보면, 경향신문 만평은 0 작품이며 중앙일보 만평은 4작품이다. [표 6]은 1주기까지 의인화된 캐릭터가 등장하는 중앙일보 만평이다. 경향신문 만평 74작품 중 의인화된 캐릭터는 0작품인 반면, 중앙일보 만평은 46작품 중 의인화된 캐릭터는 6작품으

로 13%에 해당한다. 여기서 경향신문 만평작가는 의인화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중앙일보 만평작가는 의인화 캐릭터를 종종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만평에서 의인화된 캐릭터는 해피아를 상징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캐릭터, 새로 의인화된 민경욱을 상징하는 앵무새 캐릭터, 유언비어·악성댓글·정치선동·막말을 상징하는 늑대 캐릭터, 안행부를 상징하는 악어 캐릭터와 해수부를 상징하는 복어 캐릭터 및 해경을 상징하는 통타 캐릭터, 안전불감증을 상징하는 곰 캐릭터, 2014년의 많은 사고에서 허우적거리는 갑오년의 말 캐릭터가 있다.

표 6. 중앙일보 만평의 의인화된 캐릭터



2.2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칸

만화기호에서 칸은 만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 중 하나다. 통상 만화에서 '칸은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펼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만평은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 칸 1개를 사용하며, 만평작가는 해당 크기 안에서 필요한 만큼의 칸을 나누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도 한다.

[표 7]은 [표 1]의 만평 속 칸 수를 분석한 표이다. 칸을 1개만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경향신문 만평은 13작품의 65%인데 반해 중앙일보 만평은 18작품의 90%다. 즉 중앙일보 만평작가는 경향 신문 만평작가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1개의 칸만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향신문 만평작가는 2개의 칸을 25%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칸이 7작품의 35%라는 점에서 중앙일보 만평작가의 2작품인 10%에 비해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서사구조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2.4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대사

만화를 단순히 표현할 때 '그림과 글의 결합'이라고도 한다. 그림과 글의 결합은 만평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림 요소에는 '캐릭터·칸·말풍선'이 있으며, 대표적인 만화기호이다. 글 요소에는 '대사·이름·해설'이 있으며, 대사를 '대화·독백·방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화는 캐릭터의 말로써 다른 캐릭터 또는 독자를 향한 말이다. 이름은 캐릭터나 사물 또는 단체가 상징하는 실제 인물의 이름 또는 직책이나 단체 등의 이름을 의미한다. 해설은 만평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미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글이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 속 대사는 대화·독백·방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만평에 등장하는 대사는 대다수 '대화'에 해당한다. '독백'은 경향신문 만평에서만 등장하며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21일을 제외하고 연이어 18일, 22일, 23일에 걸쳐 독백의 표현으로 만평작가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하고 있다.

[표 11]과 [표 12]는 [표 1]의 만평에 등장하는 대사를 발췌한 표이다. [표 11]의 경향신문 만평은 20작품 모두에서 대사가 등장하고 있다. 반면, [표 12]의 중앙일보 만평에서는 10작품에서 대사가 등장한다. 경향신문 만평은 독백 4개와 대화 45개의 총 대사 49개다. 반면, 중앙일보 만평은 대화만 12개며 경향신문 만평의 대사 24.4%에 해당한다. 글자 수를 비교하면, 경향신문 만평이 공백을 제외한 글자가 962자인 반면에 중앙일보 만평은 115자이며 경향신문 만평의 글자 수 11.9%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경향신문 만평에서 대사가 많다는 것은 만평작가가 대화체의 서사구조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즉 경향신문 만평의 대사가 중앙일보 만평에 비해 4배(408.3%) 넘고 글자 수에 있어서 8배(836.5%) 넘는다는 점은 경향신문 만평작가가 대사를 통한 서사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성향의 작가임을 의미한다.

표 11. 경향신문 만평의 대사

게재 일자	기호	경향신문 만평의 대사 내용
0417	독백	신이시여,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제발 살아있기를, 악착같이 살아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0418	독백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너희들이 여길 왜 와?
0421	대화	정부를 믿고 가만히 있어라!
0422	독백	생때같은 자식 살려내라는 부모 심정이 중복이면 나도 중복이요. 일주일일이 다되도록 우왕좌왕, 정부가 한 게 뭐냐 따지는 게 빨갱이면 나는 새빨간 빨갱이요. 선장만 살인자냐, 마구잡이 규제완화로 수십 년 된 고물 배가 안전교육도 없이 운행해 한 권력야말로 살인자 아니냐고 책임 묻는 게 미개한 거면 나도 미개한 버려지오. 한중도 안 되는 권력, 칼 휘두르듯 쓰지 말기를! 언젠가 고스란히 되받을 날 있을 테니... 어른들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냐 미안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0423	독백	어른들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냐 미안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0424	대화1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0424	대화2	나라 전체가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0425	대화1	그렇게 노후선박 규제는 왜 풀어가지고...
0425	대화2	사돈 남 말!
0428	대화1	대한민국호 '선장'은 내가 구한다!
0428	대화2	아직 물 속에 있는 아이들은...
0430	대화1	기다리라더니 왜 말이 없지?
0430	대화2	어허! 알리지 말라니까!
0430	대화3	이건 구조가 아니라 방조...
0501	대화1	'사과' 맘에 안 들면...
0501	대화2	'감' 드시던가?!
0502	대화1	대기하라! '언딘'이 우선이다!!
0502	대화2	기수 돌려! 도지사님이 우선이다!!
0507	대화1	우리는 재난컨트롤타워 아니다!
0507	대화2	해상재난 매뉴얼과 책임은 해수부에!
0507	대화3	관할지방 해경이 구조활동 지휘!
0507	대화4	대기하라! '그 분'이 오셔야만 구조가...
0507	대화5	...결국 대한민국 '바다'는 우리가 접수한 셈인건가?
0508	대화	'언딘'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0509	대화1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타고 있다!
0509	대화2	바...밖으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0512	대화1	아내 발언은 오해...
0512	대화2	9·11테러 때도 부시 지지율은 올라! 무슨 일만 나면 대통령 땀!
0512	대화3	유가족이 벼슬땀 것처럼 생난리...
0513	대화1	아니 이런 나라망신이 있나!??
0513	대화2	내 저X들을 기필코...
0514	대화1	무책임 정부, 무능한 당국, 썩은 언론, 결국 기적은 없어...
0514	대화2	기적이 왜 없어?
0515	대화1	선내진입을 왜 해?
0515	대화2	각하께서는 사상최대의 구조작전을...
0515	대화3	해경과 해수부에 물어보라니까!
0515	대화4	가만히 있지 않으면
0515	대화5	어떻게 되는지 알지?
0516	대화1	어떻게 이런 참사가
0516	대화2	이게 나라냐?
0516	대화3	이런 비극 다시 없어야...
0516	대화4	아름 딛고 일상으로!
0516	대화5	어? 곧 선거네!
0516	대화6	그래도 아파트 값 올려줄 후보를 뽑아야 부자가...
0516	대화7	이렇게 된다니까!
0516	대화8	미개한 국민 만세!
0519	대화1	방송장악 의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 국민 앞에 약속...
0519	대화2	길버서! 알아들어?
0519	대화3	네네! 해경 비판 말고 보도국장 교체하고...

표 12. 중앙일보 만평의 대사

게재 일자	기호	중앙일보 만평의 대사 내용
0424	대화	우리는 재난컨트롤타워 아니다!
0425	대화	자..잠깐만! 왜~나만 갖고 그래?
0429	대화	책임을 다해주세요!
0430	대화	19쵸! 여기 위도와 경도가..
0501	대화1	사과합니다!
	대화2	사건입니다!
0513	대화	아~왜?
0514	대화	이리 오너라~아~으~아
0516	대화	사고는 내 책임! 사랑은 네 책임!
0519	대화	이거이...
0520	대화1	재네들도 참 안됐어..
	대화2	그러게..

2.5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이름

[표 13]과 [표 14]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발췌한 표이다. [표 13]의 경향신문 만평은 13작품, [표 14]의 중앙일보 만평에서는 10 작품에서 이름이 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만평의 경우 총 34명의 이름이 표기되고 있다. 반면, 중앙일보 만평의 경우 총 20명이 표기되고 있으며, 이는 경향신문 만평의 이름 58.8%에 해당한다. 캐릭터가 상징하는 실제 인물에 대해 직접적인 이름표기는 경향신문 만평이 ‘정홍원, 몽준, 박승춘, 남재준, 김환영’ 5명이며, 중앙일보 만평은 ‘차, 홍원, 장수, 정홍원, 박승춘’ 5명 외에 ‘유병언 대변인’으로 실명이 1명 나오고 있다. 그 외의 대다수 이름표기는 단체나 조직을 상징한다. 여기서 경향신문 만평작가가 중앙일보 만평작가에 비해서 만평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실제 인물이 누구며 누구를 대변하는지, 서사의 흐름이 현실과 연결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구조를 짜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표 13. 경향신문 만평의 이름

게재 일자	기호	경향신문 만평의 이름 내용
0418	이름1	세월호 희생자
	이름2	1993년 페리호 희생자
	이름3	1970년 남영호 희생자
0422	이름	세월호 실종자 가족
0423	이름	단원고 학생들
0424	이름1	청와대 대변인
	이름2	청와대 국가안보실
0428	이름1	정홍원
	이름2	능장구조분노 실종자가족

0430	이름1	방심위
	이름2	방통위
0507	이름1	청와대
	이름2	안행부
	이름3	해수부
0509	이름4	해경
	이름5	언딘
	이름1	안행부
	이름2	KBS
	이름3	경찰
0512	이름4	교육청
	이름5	여당
	이름1	몽준
0513	이름2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름3	모 대학교수
0514	이름1	‘해경책임’ 해수부 선장
	이름2	‘해수부책임’ 안행부 선장
	이름3	‘컨트롤타워 아닌’ 대한민국 선장
	이름4	‘언딘 먼저’ 해경 선장
0515	이름1	남재준
	이름2	검
	이름3	청와대
0519	이름1	안행부
	이름2	검
0519	이름	김환영

표 14. 중앙일보 만평의 이름

게재 일자	기호	중앙일보 만평의 이름 내용
0424	이름1	차
	이름2	홍원
	이름3	NSC 장수
	이름4	해경
	이름5	해수부
	이름6	안행부
0425	이름1	해피아
	이름2	모피아
	이름3	산피아
	이름4	국피아교피아
0429	이름	정홍원
0430	이름	해경
0510	이름1	정부
	이름2	해경
0512	이름	박승춘
0513	이름	해경
0514	이름	검
0516	이름	유병언 대변인
0520	이름1	안행부
	이름2	해수부

2.6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해설

[표 15]와 [표 16]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에 등장하는 해설을 발췌한 표이다. [표 15]의 경향신문 만평

은 17작품, [표 16]의 중앙일보 만평에서는 19작품에서 해설이 있다. 또한 경향신문 만평의 경우 총 47개의 해설이 있는 반면, 중앙일보 만평의 경우 총 58개의 해설이 있는데 이는 경향신문 만평의 해설에 비해 111.7%에 해당한다. 거의 전 표현 요소에서 경향신문 만평에 크게 뒤진 중앙일보 만평이 해설에서는 앞선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만평의 대사가 경향신문 만평의 24.4%에 불과하면서 해설은 111.7%라는 점은 정적이면서 평면적인 서사구조를 경향신문 만평작가에 비해 더 선호하는 성향임을 알 수 있다.

표 15. 경향신문 만평의 해설

게재 일자	기호	경향신문 만평의 해설 내용
0418	해설	부디 그 곳에선 아픔 없이 자유롭기를...
0421	해설	재난대응시스템
0423	해설	지금, '수업일수'보다 중요한 것...
0424	해설1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다!
	해설2	막상
	해설3	막하
0425	해설1	선장 보고의무, 선박 내부심사 등 선박 안전규제 대거완화
	해설2	747MB
	해설3	두 선장...
	해설4	규제완화호
0428	해설1	사고당시 재연...?
	해설2	사고책임 총리사퇴
0430	해설1	사고접수부터 침몰까지 한시간 반 이상, 아무도 선내에 사실을 알린 이가 없었다!
	해설2	지금도...
	해설3	보통통제
0501	해설1	말이 황당하네뜨
	해설2	대국민회의 사과
	해설3	유족들에게 유감
0502	해설1	어린 생명의 빛, 꺼져가던 그 시간에...
	해설2	해양경찰
	해설3	전남소방
0508	해설1	한국열차...
	해설2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노암 촘스키
	해설3	기관사 업무 외 신호·안전·정비 대부분 외주화
	해설4	해난 구조도 외주
	해설5	수도
	해설6	의료
	해설7	가스...
0509	해설	폭발직전 민심
0512	해설1	계속되는 '미개' 논란...
	해설2	'미개'란...
	해설3	시신수습도 안 끝난 세월호 참사
0513	해설1	탈출하던 선장들...
	해설2	NYT 세월호 참사 정부비판 광고
0514	해설1	통곡의 바다...
	해설2	그 시각 하늘...

0515	해설1	구조는 등신
	해설2	보도는 간신
	해설3	책임은 대신
	해설4	통제는 귀신
	해설5	노란리본 단속
0516	해설6	시위차단 삼진아웃제
	해설	'그들이' 믿는 구석...
0519	해설1	이랬던 그녀...
	해설2	...
	해설3	2013 대국민담화
	해설4	KBS(길비서)

표 16. 중앙일보 만평의 해설

게재 일자	기호	중앙일보 만평의 해설 내용
0417	해설	대한민국
0418	해설	제발...제발...제발...
0419	해설	재난안전대책
	해설	안전제일
0421	해설	재난관리 매뉴얼
0422	해설1	이 땅의 부모...
	해설2	도덕 불감증
	해설3	선장
	해설4	선정성 보도
	해설5	재난대책 시스템
	해설6	가짜 전문가
	해설7	안전 불감증
0423	해설8	유언비어
	해설1	기습속, 애끓는 바다...
0424	해설2	미안하다미안하다미안하다미안하다
0424	해설	재난컨트롤타워
0428	해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0429	해설1	/책임 총리 책임..
	해설2	급구 책임지고 일할 총리 구함...
	해설3	사표
0430	해설	얼빠진 구조대책...
0501	해설1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해설2	사과 논란
0503	해설1	바닥에서
	해설2	안전제일
	해설3	세월호
	해설4	바닥으로...
	해설5	안전제일
	해설6	지하철2호선
0510	해설1	어영부영하던 차에...
	해설2	유언비어
	해설3	악성댓글
	해설4	정치선동
	해설5	막말
	해설6	세월호 사고
0512	해설1	보훈처? 아님 보위처?
	해설2	"가만히 있으라"
	해설3	"가만히 있으라"
0513	해설1	신고
	해설2	구조

	해설3	수습	
	해설4	책임...	
	해설5	뭘...	
	해설6	말뚱...	
	해설7	말..	
	해설8	..	
	0514	해설1	통보하다 숨 넘어 간다~~아~~아
		해설2	유병언 일가
0516	해설1	청해진해운	
	해설2	해경	
0519	해설1	남한 일이 아냐...	
	해설2	북한 아파트 붕괴	
	해설3	세월호 대남 비방	
0520	해설1	벼락 맞다...	
	해설2	안전	
	해설3	인사·조직	
	해설4	안전센터	
	해설5	POLICE 해경해체	

3. '세월호' 만평의 서사구조

세월호를 소재로 하는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 만평과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 만평의 표현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만평의 서사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7]은 [표 1]에서 각 만평의 캐릭터 2인 이상, 2개 이상의 칸, 2개 이상의 말풍선 및 경향신문 만평의 대사와 이름을 100%, 중앙일보 만평의 해설을 100%로 본 경우를 비교 분석한 표이다. 해설을 제외하고 전 표현 요소에서 큰 차이로 경향신문 만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표현 요소 비교

신문 만평	캐릭터	칸	말풍선	대사	이름	해설
경향신문 만평	75%	35%	60%	100%	100%	81%
중앙일보 만평	49.8%	10%	10%	24.4%	58.8%	100%

만평은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 칸 1개를 통상 사용하지만 만평작가의 서사를 풀어내는 방식 차이에 의해 칸을 나누기도 한다. 또한, 캐릭터·말풍선·대사·이름·해설의 표현 요소를 얼마만큼 사용하는가에 따라 서사구조가 달라진다. 캐릭터·칸·말풍선을 서사구조의 그림 표현 요소라고 한다면, 대사·이름·해설은 서사구조의 글 표현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캐릭터와 말풍선, 대

사의 개수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칸은 만평의 서사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표현 요소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사구조의 만평은 경향신문 만평이 중앙일보 만평에 비해 더 서사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일보 만평은 말풍선을 최소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칸 수도 최소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향신문 만평에 비해 덜 서사적이라고 하겠다. 즉 중앙일보 만평은 정서적 감흥과 관련된 서정적 구조임을 의미한다. 경향신문 만평은 여러 캐릭터·칸·말풍선과 많은 대사·이름으로 만평작가의 의도하는 의미작용을 위해 구체적이고 서사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중앙일보 만평은 최소 캐릭터·칸·말풍선과 그림의 보조 역할로써 글 요소를 최소화하여 만평작가의 의도하는 의미작용을 위해 간결하고 서정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두 신문사의 만평은 경향신문 만평의 구체적인 구조와 중앙일보 만평의 간결한 구조의 차이로 인해 서사성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만평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면서 구체적이고 서사적이라면, 중앙일보 만평은 소극적이고 간결하면서 서정적이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성향이 다른 두 신문사의 '세월호' 만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만평을 구성하고 있는 표현 요소의 차이가 서사구조의 차이임을 밝히고 있다. 비록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서사구조는 다를지라도 세월호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만평작가의 추도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서론에서 제기한 신문사의 편향성과 만평작가의 정치적 관점 및 만평을 그리는 기호적 성향에 의해 만평의 표현 요소는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는 두 신문사 만평의 표현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만평은 표현 요소와 의미의 결합이며, 만평작가가 만평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작용에 의해 창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만평의 의미와 의미작용에 관한 부분은 배제하고 표현 요소만을 분석하여 만평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성향이 다른 두 신문사의 만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만평의 표현 요소를 통한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1] 김태원, 정정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pp.199-224, 2016.
- [2] 박경철, “만화콘텐츠 교육을 위한 네칸만화 구조와 수사법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19호, pp.17-35, 2010.
- [3] 신병률, “시사만화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에 관한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3호, pp.284-319, 2009.
- [4] 김용민,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향신문, 2014-2015.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mode=list&code=361101&page=18
- [5] 박용석, “박용석 만평,” 중앙일보, 2014-2015. <http://news.joins.com/cartoon/editorial/list/26>

저 자 소 개

박 경 철(Keong-Cheol Park)

중신회원



- 1995년 2월 : 공주대학교 공주문화대학 만화예술과
 - 1998년 2월 :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미술학사)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만화예술학과(미술학 석사)
 - 2011년 2월 : 공주대학교 만화학과(만화학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대학원 문화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디자인, 만화, 문화, 애니메이션, 캐릭터